사람 안경

(요12:37~43)

37.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4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람 안경>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사람 안경', 안경은 안경인데 사람입니다.
사람이 안경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이 안경입니까?
내 마음에 이 인간사회 안에서 어떤 혁신을 일으키는 선두주자가 되고픈 꿈이 있습니다.
혁신과 사회개혁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때, 안경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이 혁신의 길을 밝히 보여주고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내 마음에 불어넣어주고, 나의 장래에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어 하는 그 지점을 밝히 보게 하는 안경이 있는데, 예를 들어 스티브잡스 같은 사람들, 스티브잡스에 의해서 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스마트폰이라는 것, 굉장하지 않습니까? 인류역사를 바꿔놓았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서 정치에 뜻을 두고 정치가적인 어떤 이상을 꿈꾸고 있다, 그러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같은 경우가 나의 궁극적

인 꿈을, 내 마음이 바라보게 해주는 일에 있어서 안경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공부를 해서 석학이 되고 싶다, 그러면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노암 촘스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내게 안경이 되어져서 내가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도달점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이고 또렷하게 보이고 가까이 보이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바로 '사람 안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 안경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IT산업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 빌 게이츠가 안경이 돼줄 텐데, 예수님은 어떤 안경이 되셔서 어떤 것이 확실하게 보이게 해주는 안경이 되실까?
여기서 안경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안경마다 다 자기에게 도수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시라서 졸보기를 쓰든지, 원시라서 돋보기를 쓰든지, 또 같은 졸보기안경을 쓰더라도 도수가 맞아야 되고, 돋보기를 쓰더라도 도수가 맞아야 됩니다.
도수가 안 맞으면 안경을 썼기 때문에 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야마다 나한테 맞는 안경을 써야 되고, 내 마음에 부합하는 그런 안경을 골랐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안경을 쓰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라든지 원하는 소원을 향해 달려가는 데에 길이 흐려지고 안 보이고 자신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골라서 써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도, 지금 그때 지도교수님을 생각해보면, 내 논문의 주제에 맞게끔 때마다 그 수준에 그 주제와 연관되어서 정말 필요한 책들을 하나씩 툭툭 던져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연구서가 나에게 안경이 되어서 내 연구주제에 도달하려고 하는 길을 밝히는 데에 튼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른 책을 읽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안경으로 세상에 오셔서 잘 보이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썼을 때 인생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공생애 사역의 결산과도 같은 한 마디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말씀 이후 13장부터는 대중을 상대로 한 사역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두고 깊은 의미의 강화를 계속해나가실 뿐, 더 이상 사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 37절 말씀은 공생애 3년 동안의 사역의 결산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믿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이사야서에 예언이 돼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특이하고 희한합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글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한테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깨닫지 못하도록 둔하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볼 것을 못 보게 하고 깨달을 것을 못 깨닫게 해갖고 믿지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사야를 유대백성에게 보내신 이유도, 예수님에게 인간의 육체를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다 구원하러 보내신 것인데, 구원시키러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볼 것을 보고 깨달을 것을 깨달아 가지고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믿지 못하게 방해한 것 같이 써놓은 이사야의 인용된 글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하시려는 하나의 사건이 양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똑같은 구원의 사건이 눈을 멀게 하는 사건이고 마음을 더욱 더 둔감하게 하는 사건이라서 영적인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희한한 것이죠.
하나의 사건인데 한 사람에게는 무한한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한 사람에게는 완전히 영적으로 개악이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출교가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이상하게 믿는다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믿었는데 곧바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고, 믿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믿었는데 드러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수긍했다,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
수긍했다는 것은 그저 옳다고 인정하는 정도이지, 운명을 같이 하려는 결단은 못했다는 얘기겠죠,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이 믿었다는 말을 그렇게 사용한 것이에요, 수긍만 해도 믿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광이라는 것은 영화로운 광채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명이라고 비유를 들어서 꼭 말씀을 드립니다.
내 영광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나를 발견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조명을 받을 때 기쁨과 만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내가 보여 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가수 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가 한 이런 인터뷰의 내용을 들었어요, '데뷔한지 13년인데 요즘 들어 외국에서 신인가수로 취급을 받고 있는 싸이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데뷔한지 13년 되었는데, 그러면 왜 13년 동안은 외국에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외국에서는 암흑 속에 묻혀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 곡 하나를 잘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유럽이고 남미고 북미고 아시아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싸이라는 가수를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싸이 입장에서는 자기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조명을 받고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영광입니다.
이 인간세상에서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이게 되는 것, 이게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속에 보이는 것이 내게 만족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비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유일하고 첫 번째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 만족의 이유가 되는 상태.
그런데 선민인 유대인들 중에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율법사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비쳐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기가 비쳐지고 있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기쁨의 이유로 삼았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더 우선적인 만족의 이유로 삼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이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 구원의 사건이 오히려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둔감하게 했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함께 연결이 돼서 이해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빌 게이츠 같이 벤처사업에 몰입해서 성공하고 싶을 때, 빌게이츠는 내가 사업을 통해 나가야 될 길과 도달해야 될 지점을 보게 하는 안경이 됩니다.
혁신을 꿈꾸고 있을 때 스티브잡스는 내가 나가야 될 길과 도달해야 될 지점을 보여주는 안경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을 안경으로 쓰게 되면 어느 길이 보입니까?
예수님은 IT산업을 성공시킨 분도 아니고, 촘스키처럼 석학도 아니시고, 박근혜 씨처럼 이 땅에서 임금 되는 자리에 서신 분도 아니십니다.
대체 예수님을 마음의 안경으로 썼을 때 어디가 보이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빌게이츠라는 안경을 쓰면 빌게이츠가 도달한 지점이 보이고, 스티브잡스라는 안경을 쓰면 스티브잡스가 도달한 지점이 보이고, 박근혜라는 안경을 쓰면 박근혜 씨가 도달한 정

치가로서의 최종점이 보이는데,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면 어디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 내 마음에 어떻게 가면 하늘에 도달하게 될지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경을 썼는데, 이 마음은 여전히 빌게이츠, 스티브잡스, 박근혜 씨의 자리를 향하고 있고 싸이의 자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촘스키의 자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도, 이 땅에서 멋진 남자를 발견했을 때 그 남자의 애인의 자리를 보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남자의 마음속에 내가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랑을 원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리로 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맨스 책을 읽고 로맨스 드라마를 보면서 나를 대입시켜 가고, 내가 저런 남자와 저런 여자와 함께 결혼할 수 있다면…, 이러한 시선을 고정시키고 바꾸지 않은 채로 예수님 안경을 쓰게 될 경우에, 근시인 사람이 졸보기안경 대신 돋보기안경을 썼을 때처럼, 아니면 원시인 사람이 돋보기안경 대신 졸보기안경을 썼을 때처럼 더 안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빌게이츠 같은 자리에 올라선 분이 아니십니다.
멋진 애인과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처럼 그런 사랑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이 인간사회의 다른 사람들 속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을 기쁨의 이유로 삼고 있는 가운데, 그 시선을 바꾸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안경으로 썼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변해갑니까?
여러분, 요즘 알 없는 안경들 많이 보실 겁니다.
연예인들이 렌즈 없이 안경테만 걸치고 나옵니다, 그걸 패션안경이라고 합니다, 패션안경.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렌즈가 없는 알 없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써서 보려면 전부 교인들의 시선이 이 세상에서 박근혜 씨처럼, 빌게이츠처럼, 스티브잡스처럼, 싸이처럼, 세상 안에서 기쁨의 이유와 만족의 이유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 가버리신 예수님을 썼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이 시선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은 채 예수님을 쓰고 있으면 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다 빼버렸어요,
지금 하늘로 만족하자는 구호가 교회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천국으로 만족하자는 구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을 앞당겨서 기뻐하자, 하나님아버지로 지금 여기서 기뻐하자!'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렌즈를 제대로 끼고 있으면 어질어질하니까 다 빼버리고 알맹이 없는 렌즈 없는 예수님 테만 남은 안경을 끼고서는 교회라고 하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십자가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는 내 마음의 시선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선의 방향을 하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바꾸도록 내가 써야 될 안경인 예수님을 쓰고서 이 세상에서 자꾸 기쁨과 만족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 땅에서 자기들 선민의 나라가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는 영광의 자리, 인간사회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들여다보니까 자꾸 어질어질해서 사람의 영광 자리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으려 하십니까?
그러면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 당선해서 느끼는 그 기쁨, 싸이가 조회수 13억이 될 정도로 인기를 얻어서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 자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살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더 온전한 기쁨으로 더 온전한 만족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기뻐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음행위입니다.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이 땅으로 기뻐하려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라는 겁니다.
왜?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게 아니라 주시겠다는데, 만족을 빼앗아가려는 게 아니라 만족감을 주시겠다는데, 행복감을 주시겠다는데, 인상 쓰고 다니지 않게 해주시겠다는데, 왜 하늘로 기쁘고 하늘로 만족하고 하늘로 배부르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기쁨과 만족과 유쾌함의 이유가 이 땅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마음의 안경으로 쓰게 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시선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꿀 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보이고, 그 길로 가기 전 이 땅에 대해서 죽는 죽음이 보이고, 그래서 주님의 여정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누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이유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돈이 있어서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 걱정할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 안정감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돈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져 갈 것이니까, 건강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될 것이니까.

방향을 바꾸면 주어집니다, 보입니다.
예수님 안경을 쓰시고 방향을 바꿔서 하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마음에 느껴져서 이 땅의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과 만족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땅에 있으면 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빼버려서 알 없는 안경테를 예수 믿는다고 쓰고 다니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해주시고, 하늘이 유일한 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예수 안경을 쓰고 밝히 하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